

순천만정원박람회, 가정의 달 행사로 흥행 날개 단다

개막 한 달만에 255만명 다녀가... 입장료·식음료 등 매출 168억855만원
5일 2005년 이후 출생자 무료 입장·최현우 미술공연... 7일 트롯스타 무대
2~16일 '패밀리데이' 경품행사... 27일 홍보대사 배일동 명창·재즈 협연도

개막 한 달을 맞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55만 관람객을 불러모았다. 순천시는 지난 30일 기준 정원박람회 관람객이 255만682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박람회 입장료와 식·음료 등 매출액은 168억855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원박람회는 지난 4월1일 개막한 뒤 오는 10월 31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지에서 열린다. 개막 한 달 만에 255만 관람객을 운집한 정원박람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5일 어린이날에는 2005년 이후(2005년생 포함) 태어난 청소년과 어린이라면 박람회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나이를 보여줄 수 있는 청소년증과 여권, 등본 등 서류를 입구에서 제시하면 된다. 이날 오전그린광장에서는 '101회 어린이날 행사'가 '놀다가든(garden), 쉬다가든, 정원과 함께 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미술사 최현우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다.

행사장까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보도를 이용해 가면 행사장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준다. 이외 다양한 공연과 체험, 명랑운동회, 어린이 베틀시장, 그림 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6일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뽕수'가 가족과 함께하는 '도전 기네스'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7시부터는 '가든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며 퓨전 국악밴드 '경지'와 재즈가수 유혜린, '강승훈 퀵텟', '하모나이즈' 등이 무대에 오른다. 7일 오후 7시에는 아버이날을 앞두고 TV 경연 '미스터트롯'의 주역인 정동원과 장민호, '트롯전국체전'에 출연한 설하윤이 무대를 꾸민다. 오는 27일 오후 5시에는 정원박람회 홍보대사인 배일동 명창과 재즈 음악가가 함께하는 공연이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정원박람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가족과의 추억을 소환하는 '패밀리데이' 경품행사를 벌인다. 2일부터 16일까지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에 정원과 관련된 가족과의 추억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치킨 교환권을 증정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달 30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어린이 관람객들이 순천만국가정원 서원 어린이 동물원 인근에서 풍선 공연을 즐기고 있다. <순천시 제공>

심야어린이병원·어르신 무료버스... 여수시 '적극행정' 10대 과제 선정

시민투표로 우수 공무원 선발·포상... 6월 면책보호관 도입

여수시가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등 적극 행정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여수시는 최근 시 적극 행정위원회를 열어 2023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선정한 적극 행정 10대 중점과제는 ▲여수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행정효율성 제고 위한 시책 일몰제 도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조기 공급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주말 돌봄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시민 투표제 도입 등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사업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분기마다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적극 행정 우

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 자체 인센티브 발굴·제공, 기관장 표창 등 보상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1월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속직원을 의무화하고 퇴직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오는 6월에는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중기 여수시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분청의 깊음, 고흥의 아름다움... 고흥분청사기 전국 공모전

고흥군, 8월 2일~5일 19세 이상 응모 가능... 대상 상금 천만원

고흥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분청사기 전국 공모전이 열린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고흥분청사기의 전통을 잇고 도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국내외 도예 작가들의 기량을 한껏 펼칠 '제6회 고흥분청사기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전은 '분청의 깊음, 고흥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고흥분청사기가 품고 있는 내·외적 매력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이를 우수하게 표현한 작품

을 발굴하고자 추진된다.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는 완성도, 창의성, 표현성, 예술성, 역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총 30명의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3800만원으로,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 입선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으로 상금 1000

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누리집에서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오는 8월 2일부터 8월 5일 오후 4시까지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 직접 방문해 출품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모전으로 고흥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에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 차 풍년 들게 하소서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가 개막한 가운데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지난 30일 김철우 보성군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올 한해 차의 풍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다신제를 올렸다. 오는 7일까지 보성군 일원에서 '천년의 보성 차,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개최한다. 차문화 체험, 전시, 공연, 마켓, 공연 등 총 9개 분야 77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보성군 제공>

보성세계차엑스포 성공 기원 불꽃축제

5일 별교생태공원

'2023 보성 불꽃축제'가 5일 오후 6시30분 별교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불꽃축제는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와 제46회 보성다향대축제 성공 기원을 위해 마련했다.

보성불꽃축제는 지난 2019년 열린 '보성 울포해년 불꽃축제'의 성과를 발판삼아 공연과 음악이 함께하는 불꽃쇼와 드론쇼를 결합한 새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보성군의 특산품 캐릭터 '녹차몬'의 환형인사로 시작하는 드론쇼는 보성차(茶)가 가진 가치와 보

성군의 상징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밤하늘을 수놓을 화려한 불꽃쇼와 빛의 향연인 드론쇼가 표현할 보성군의 꿈과 이야기가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산단에 산재 희생자 추모탑 건립

사업비 10억... 여수산업안전체험관 부지에 연말 완공 예정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된 근로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1970년대에 조성된 여수산단에서는 각종 사고로 150명이 숨지는 등 350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여수산단 내 여수산업안전체험관 부지에 '여수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안전기원탑'을 설치할 예정이다. 여수산업안전체험관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에 석유안전체험관, 산업안전체험관, 예방문화체험관, 가상안전체험실, 응급처치체험실 등 65개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다음 달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여수산업안전체험관 건립에 맞춰 추모탑을 설치할 계획이다. 추모탑과 함께 조각상, 비문, 향로, 조경시설 등을 마련한다. 사업비는 산단 34개 업체로부터 4억원, 6개 노조에서 5000만원, 여수상의 등 관계기관에서 5000만원 등 5억원을 기탁받았으며 시비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석유화학 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교직원 숲 생태교육 운영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사장 이상철)이 지난 28일에 입면 제철소에서 1차 생태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생태 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교사 등 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숲 전문가인 김용규 여우숲학교 교장 선생님과 함께 숲에서 현장 강의와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 선생님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시간

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교사는 "숲과 교감하면서 아이들과 더 깊이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이번 생태 교육이 교육 현장에 접목돼 아이들에게 생태적 인식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at@kwangju.co.kr

구례군, 농림부와 농촌중심지 활성화 협약

2027년까지 325억 사업비 확보...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추진

구례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정부에서 패기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구례군은 지난해 6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농식품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최근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군은 이번 협약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25억원을 확보했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촌 정주 여건 개선 기반을 다져 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